



張 永 奎

### 美, 수요늘어 84萬톤 輸入예상

74년 및 75년을 통해서 生産增加, 在庫累増 및 輸入需要激減등으로 史上未曾有의 부진상을 노정했던 世界肉類市場이 금년에 들어서서는 蘇聯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들이 大量購入을 서두르고 있어 그 전망이 자못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蘇聯은 뉴질랜드로부터 이미 3만~4만톤의 羊肉을 구입키로 계약을 체결했고 프랑스 및 瀛등지에서도 30만~60만톤의 牛肉을 輸入할 예정이며 輸入制限을 강화했던 日本도 경기회복에 따라 올해엔 16만톤의 牛肉을 輸入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美國을 비롯한 EC, 캐나다등 先進諸國의 肉類輸入예상량은 前年보다 증가되어 침체했던 主要輸出國의 畜産業은 이제 그 활로를 찾게될것 같다.

세계의 주요 畜産國과 肉類 소비국의 交易

및 生産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美國: 76년도 美國의 牛肉수입량은 景氣回復에 따른 消費需要증대로 작년보다 4만톤이 늘어난 84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輸入예상량중 89%에 해당하는 75만톤은 美國務省이 輸入을 제한하기 위하여 制定한 美國肉類輸入法의 自律規制 코더 適用量인대 濠洲등 輸出國들은 이 코더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막대한 消費需要를 충당하기 위해 國內生産을 크게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작년도 하반기중의 도살율이 과다하여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EC: 최근 EC는 生産量減少에도 불구하고 輸入統制를 계속 강화하여왔다.

따라서 76년도 EC의 牛肉輸入 예상량은 25만톤으로서 전년보다는 5만톤이 증가하였지만 73년도의 98만톤에 비해서는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 蘇, 뉴질랜드羊肉 3萬4千噸購買

日本: 76년도 日本의 牛肉輸入 豫상량은 16만톤으로 74년 및 75년에 비해 무려 2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牛肉 생산량이 격감되었기 때문인데 日本의 총 牛肉소비량은 輸入 牛肉비중이 74년 및 75년도엔 20%를 차지했으나 금년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C와 마찬가지로 日本은 牛肉輸入에는 코터제를, 豚肉에는 각종 租稅附加制, 그리고 家禽肉에는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輸入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國內生産을 촉진시키기 위해 養畜農家에게 肥肉牛 頭當 13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76년도중 캐나다의 牛肉輸入豫상량은 前年對比 7천톤이 늘어난 9만톤, 輸出량은 1만 5천톤이 증가한 3만 5천톤으로서 輸入량은 輸出량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蘇聯: 최근 蘇聯은 史上 최대의 凶作으로 인한 사료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따라 家畜頭數는 계속 격감되어 肉類輸入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년도 牛肉輸入豫상량은 30만~60만톤에 이르며 羊肉은 이미 비료수출을 조건으로 뉴질랜드에서 3만~4만톤을 輸入키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濠洲: 各國의 輸入需要둔화와 국제肉類價格의 하락으로 지난 2년동안 계속 부진되었던 濠洲의 肉類수출은 금년엔 그 전망이 밝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輸入國들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특히 蘇聯의 대량肉類輸入에 따라 價格도 급등세로 반전 했다.

76년도 牛肉輸出 豫상량은 전년도 대비 10만톤이 늘어난 85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輸出호조전망과 함께 生産量은 75년보다 5.6%가 늘어난 1백 7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草地條件등으로 미루어 어떠한 海外需要에도 대응할 수 있을만큼 增産餘力은 충분하다.

뉴질랜드: 금년도 뉴질랜드의 牛肉生産量은 75년對比 6%가 감소된 47만톤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도에 도살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輸出豫상량은 30만톤으로 75년도보다 1만 6천톤이 줄었다.

또한 美國을 비롯한 세계 各國의 豫期치 않은 輸入需要增加로 同輸出量은 수정 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 海外市場의 수요둔화와 交易條件의 악화로 지난 2년간 침체를 면치 못하였던 아르헨티나의 牛肉輸出은 금년엔 완전회복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데 76년도 牛肉輸出豫상량은 전년도의 26만톤에서 40만톤으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의 畜産業은 그동안 高度의 인플레이, 生産費증가 및 販賣價의 低落이라는 3重苦에 시달려 자가소비 혹은 방패성행등 큰 시련을 겪었다.

不正食品 근절하여 健康社會 이룩하자